**보 도 자 료**

|  |  |
| --- | --- |
| **보도시점** | **즉시** |
| **연 락 처** | 070-4281-6102 |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224 |
| **홈페이지** | http://www.futureconsensus.org |
| **담 당 자** | 김유영 (media@fcinst.org) |



이번 ‘2017 여시재포럼(2017 Future Consensus Forum)’은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프로젝트(도시와 도시, 에너지 협력)”라는 주제로 2017년 11월 25일~27일에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약 50여 명의 한•중•미•일•러의 정치, 경제, 싱크탱크 인사가 참여한다. 북핵 문제 등 불안한 국제 상황에도 각국의 주요 인사가 한국으로 발걸음을 하게 된 데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드는 지자체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의 공동 노력이 있었다. 여시재 이광재 원장은 “싱크탱크는 미래를 설계한다. 정치인은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한다. 경제인은 그것을 확장해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 싱크탱크, 정치 지도자, 경제인이 함께 모인 이유다. 이번 포럼에서 3자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의제는 ‘2016 여시재 포럼’의 연장선에 있다. 작년 포럼에서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여시재는 국내외 연구팀과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8월 말 한•중•일•러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1) 도시연합 시대, 2) 동북아 에너지 협력, 3)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협력, 4) 동북아의 미래설계 등의 의제가 공식 확정돼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도시 세션에서 여시재는 ‘자유 도시 연합’을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안한다. 역사적으로 항만 도시 간 자유 무역은 새로운 성장의 거점이었다. 한자동맹과 지중해 동맹이 그 예다. 서해-동해-북극항로로 연결되는 새로운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길이 지나는 항만 도시를 자유 무역 도시로 만들어 연합하자는 것이 제안의 핵심이다. 두 번째 에너지 세션은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 연합의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동북아 통합의 기반이 될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여시재는 식량 협력, 금융 협력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인 여시재 부원장은 “작년 포럼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그중 일부는 정책으로 추진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포럼도 단순히 지식 경연의 장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화와 합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 공식 채택된 후안강 중국 칭화대 국정연구원 원장의 ‘일대일로 2.0: 일대일로일도(一帶一路一道)’ 구상은 작년 포럼에서 제시하였던 여시재의 나비 프로젝트 공동연구의 일환이다. 여시재는 유라시아 및 동북아 협력을 위한 비전으로 일대일로와 북극항로를 연계하는 나비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포럼 개요 붙임

[포럼 개요]

**2017 Future Consensus Forum**

**2017 여시재 포럼**

1. **타이틀**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 나비프로젝트(도시와 도시, 에너지 협력)**

1. 의의:

**1.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이끄는 전략 대화의 장**

*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의체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리더가 모여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설계하고 평화 정착을 위한 지혜를 교환합니다.
* **3주체가 함께 합니다**

싱크탱크, 정치인, 경제인이 함께 함께 합니다.

싱크탱크는 연구를 통해 동북아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정치인은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정책화하고 현실에 반영합니다. 경제인은 그것을 확산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2017 여시재 포럼>은 싱크탱크, 정치인, 경제인 3자가 함께 세상의 진화를 도모하는 장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여야가 함께 합니다.

1. **주요 의제**

**1.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 미래 질서 구축**

* 왜 경제인가? 경제협력에 주목하는 이유

독일의 1차통일은 관세 동맹의 효과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출범은EU 통합의 시초

“1950년 5월 9일(‘유럽의 날’), 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교장관은 석탄과 철강을 초국가적으로 공동관리하자는 ‘슈망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외교관 장 모네는 그것을 실행했다.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의 시작이었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 체결로 이어져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진화했습니다.

경제 협력은 지역의 통합과 안정의 단초가 됩니다.

**2. 경제 협력의 추진 전략**

* **나비의 꿈 :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One World프로젝트**

나비의 꿈, 그 중심에 동북아가 있습니다.

* ‘나비 프로젝트: 유라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을 연결하는 길’을 구상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 한중일은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오른 한중일의 항만은 전체 물동량의 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만도시간의 자유무역은 동북아에 싱가폴, 홍콩 자유무역항 같은 도시가 수많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중해 시대의 번영을 이끌 것입니다.
* 과거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유럽 연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중일이 전세계 LNG 소비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중일 삼국의 가스석유 수입액은 약 420조원에 달했습니다.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은 이를 넘어서는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를 초래할 것입니다. 에너지 순수입국인 한중일의 에너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의 아시아 수퍼 그리드 구상 역시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국 리더들의 솔루션 제안의 장**

* 동북아 질서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안하고 토론의 장이 열립니다.

1. **포럼의 차별성**

**1. 경제 협력 이슈에 집중합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핵심 분야인 북극항로, 도시간 협력, 에너지협력, 금융 협력에 집중하여 매해 연구를 지속합니다.

**2. 각국 싱크탱크와 연구의 지속과 발전을 지향합니다**

각국 연구자들과 일년간 연구 교류하고 이를 진화시켜 포럼에서 만나 성과를 확인합니다.

후안강 청화대 교수는 나비 프로젝트의 구상을 받아들여 올해 5월 열린 일대일로 회의에서 ‘일대일로일도’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구상은 중국 정부에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 뱅크 회장이 설립한 자연에너지재단과는 아시아 수퍼 그리드 협력을 공동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1. **포럼 개요**

* 일시: 2017년 11월 25일(토)~27일(월)
* 장소: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 주최·주관: 재단법인 여시재

